

제3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개요

- 가. 구 분 : 국립극단 제38차 정기이사회
- 나. 일 시 : 2019.12.05.(목), 12:00~13:00
- 다.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6명 참석 / 감사 참석
- 라. 참 석 자 : 이사장 김상헌, 이사 이성열, 고희경, 이상우, 이재경, 조현래(대리 김경래 사무관) / 감사 김혁수
- 마. 간 사 : 사무국장 오현실

2. 보고사항

- 가. 제37차 임시이사회 의결처리 결과
- 나. (재)국립극단 2019년 실적

3. 심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의결결과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 원안가결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가결

5. 참고사항

- 가. 제38차 정기이사회 주요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9년 12월 5일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반갑습니다. 국립극단 제38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성원보고 바랍니다.

간 사 : 재적이사 9분 중 6분 참석하셨고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 장 : 회의자료를 보니 오늘 보고사항 2건, 결의사항 2건 있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먼저 보고사항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37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2호 안건은 지난 번 보고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누적된 11월 30일 기준 실적인거죠?

간 사 : 네. 맞습니다.(회의자료 4~5쪽, '국립극단 2019년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 2호 안건에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전>

이 사 장 : 심의 안전 진행하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7~9쪽,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보고함)

이 사 장 : 1호 안전은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도 극단 창립 70주년을 위한 3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함인가요?

간 사 : 3천만원은 맞습니다만, 2020년에 <연극의 해>를 추진하기로 확정되어, <국립극단 70주년> 및 <연극의 해> 이렇게 행사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연극의 해> 파트너는 한국연극협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된 자금은 모두 국립극단이 교부받아서 <연극의 해>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다시 재교부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호 의안에서도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 현재 연극협회가 사전준비금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3천만원을 올해 교부해주고 내년 사업비가 들어올 때 내년 예산 교부 받으면 기 교부액 3천만원을 제외한 6억 7천만원을 재교부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 장 : 이 건은 문화부와 협의가 완료되신 부분인가요?

간 사 : 네. 협의가 완료된 건입니다.

이 사 장 : 약간의 예산 변동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간 사 : 전체 예산 변동은 없고요, 작품별로 약간 남는, 부족한 금액을 자리 이동하여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제2호 안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제1호안전과 함께 결의 논의를 진행하시지요.

간 사 : 네. (회의자료 10~14쪽,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함)

이 사 장 : 이상 안전에 대한 보고는 다 받으셨고, 26페이지 <붙임3>문서로 내년 사업 세부계획(안)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편하게 의견 나누시죠.

이 사 장 : <연극의 해>라는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인가요?

간 사 : 네. 정부가 지정합니다. 그 전에는 <책의 해>라고 해서 출판의 해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이 사 장 : 언제 지정 된 건가요?

간 사 : <연극의 해>는 지정되어있던 건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오다가 장관님 바뀌시면서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고 희 경 : 옛날에 하다가 안했다가 그런 것 아닌가요? 90년대 이어령 장관이 하셨다가 10년 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연극한테 이러한 해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김 경 래 :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영상·미디어 환경이라던가,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연극계 창작환경 등으로 인해 연극이 많이 침체되어있는데 <연극의 해>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고 새로운 연극계의 생태계에 대한 논의도 하고 관객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보자'라는 것이 <연극의 해>를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계기는 국립극단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점이고요.

이 재 경 : 여기 디지털아카이브는 내년에 특별히 뭔가 70주년을 기념하는 오픈 행사 등이 있나요?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죠?

간 사 : 네. 작업 중입니다. 별도의 행사를 따로 만들 수는 없고, 오픈일 공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 희 경 : 실질적으로 뭐를 아카이빙 하나요?

간 사 : 저희 70주년의 역사를 다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어 현재는 재단법인 이후의 자료들을 목록부터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 경 : 일원화하는데 있어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간 사 : 많이 있습니다. 예전 자료는 국립극장이 가지고 있고 재단법인 이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MOU를 맺었으나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작품개발실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재 경 : 알겠습니다.

이 성 열 : 내년 4월 29일 기념식 이전에 1차 오픈을 하는데 아카이브는 그 시점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보관시켜 나가야할 것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재단법인화 이후의 자료는 금년까지 기초자료는 등재를 12월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서 서비스 시작을 3,4월 경 1차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급화 하는 작업을 내년 1년 동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국립극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계방법에 있어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부분도 있어서 링크를 연계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궁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 등재에 대한 입찰을 해서 금년 작업은 연내에 마치고 내년에는 시스템 관련된 업체를 다시 입찰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혁 수 :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사업 사업비가 4.35% 늘어난 거네요? 학술교육사업이랑 극단 홍보마케팅 사업은?

간 사 : 홍보마케팅 비용이 1억 3천 증가가 되어있는데 사실 이 1억 3천만원으로 저희가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은 국립극장에 올라가서 공동으로 행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 같고요. 저희는 4월 6일 서계동 마당에서 연극인들을 모두 모시고 잔치

내지는 축제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홍보마케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 열 : 그 까닭은 4월 29일 국립극장에서 하는 저희랑 공동으로 하는 기념식은 연극 뿐 아니라 모든 장르를 망라하고 있어서 저희 연극인들이 축하하기에는 참여가 가능한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연극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잔치는 따로 저희가 서계동에서 계획합니다.

고 희 경 : 명동에서는 그럼 없나요?

이 성 열 : 기념 전시를 계획합니다.

고 희 경 : 70년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이 성 열 : 70년의 정확한 시작은 부민관입니다.

고 희 경 : 그렇군요.

이 성 열 : 명동에서 기념식을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도 해서 그 곳은 전시를 해서 상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서계동에서 3~400명 정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해> 관련해서는 92년도 이어령 장관 임기에 <연극·영화의 해>를 만들어서 정진수 선생님이 집행위원을 맡아서 사랑티켓 같은 획기적인 관객개발 기획 등을 하여 성공적으로 잘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당시, 27년 전에 연극영화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연극의 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문화부에서 2년 전에 <책의 해> 행사를 1년 했다하였고 국립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문화부의 의지가 있어서 전임 도종환 장관님때부터 박양우 장관님에 이르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나와서 증액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일 전체 예결위에 부쳐질 예정인데 얼마나 상향조절이 될지 궁금합니다. 협회에서는 추진위원단을 꾸려서 예산 나오는 데까지 하고, 전체 사업은 집행위원단을 다시 꾸리고 맡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립극단은 <연극의 해> 사업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다 받아서 재교부와 정산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70주년 사업을 쪽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 장 : 거기는 일시적인 행사다보니 예산을 기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처럼 쓰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 장 : 크게 이견이 없으시면 제 2호 심의안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이어서 제 1호 안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약간, 일부 전용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쭙보고 싶은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옥외 홍보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쓰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괜찮은가요?

간 사 : 8페이지 하단 표의 사업비입니다.

이 사 장 : ‘SNS활성화를 위한 고객 홍보 예산을 절감하여...’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도 검토하신 내용인가요?

김 경 래 : 네, 저희들도 검토했고 안을 작성할 때에도 협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 장 : 이상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 1호 안건 가결하겠습니다.
제38차 정기이사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현	(인)	이 사	이성열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조현래	(인)